

두 번째 평가원 수학 모의고사를 위한

마지막 준비 with UR dokzon

*UR dokzon in Orbi* - 할 수 있어. 후회 없이 보고 오자 :)

Comment. 9평은 후회없이 치면 성공이다. 실수 없이 실력 부족으로만 틀리자.

## Chapter 0. 입시 선배로서 드리고 싶은 말

저 위의 Comment가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능처럼 치되 어디까지나 수능을 위한 연습 단계입니다. 절대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 내 공부에 현재 뭐가 부족한지 이번 9월 모평 (8/31이긴 하지만)을 통해 제대로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수 없이 실력 부족으로만 틀려야 합니다. 점수 때문이 아니라 정말 내가 모르는 것만 틀려야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점을 명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점수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수능 점수를 위해 우리는 세 가지를 보통 준비합니다.

1. 점수의 상한선을 올린다. 2. 점수의 하한선을 올린다 3. 상한선과 하한선 사이에서 최종 점수를 결정한다.

1번과 2번은 평소에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자신의 사고의 심도를 점점 깊게 만드는 것이 1번이고, 풀 수는 있지만 더 빨리 풀려고 노력하며 비킬러, 준킬러 문제를 연구하는 것이 2번입니다.

그리고 3번이 여러분들이 내일 9모에서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상한선과 하한선에서 최대한 상한에 가깝게 맞으려고 바로 '당일'에 노력하셔야 합니다.

첫째, 발문을 천천히 읽으세요. \_ 발문에 모든 Hint가 다 들어있음을 잊지 맙시다.

둘째, 계산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_ 절대 평소보다 빠르거나 느리게 하지 말고 일정하게.

셋째, 답이 나왔다 싶으면 잠시 숨을 고르고 반드시 맞추세요. \_ 다 도착해서 넘어지지 맙시다.

넷째, 수학 시험이 끝나고 영단어나 연계 교재를 보세요. \_ 점심시간에 30번 풀지 말자고요.

다섯째, 시험을 보기 전 쉬는 시간에 친구랄 떠들지 마세요. \_ 고요하고 숭고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여섯째, 잘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한 마디만 해줍니다. \_ 잘할 수 있으실 거예요 :)

이 여섯 가지 사항 말고도 억울하게(?) 실수할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을 가져왔으니 전날 밤이나 수학 시험 보기 전 쉬는 시간에 읽으며 절대 여기에 쓰인 실수는 하지 맙시다.

성공적인 9평으로 수능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_ 이선우, UR독존 올림

## Chapter 1. 계산 실수

- 약분 잘 하기
- 2와 3 쓸 때 구별 확실히 하기
- 답이 나올 것 같으면 그때부터 계산 천천히 하기

## Chapter 2. 발문 실수

### 1) 수학 1

- log 나오면 진수 조건 써놓고 시작하기
- 그래프와 도형이 겹쳐 나오면 도형의 성질 이용 후 그래프 이용하기 (순서 중요)
- $\sqrt{\quad}$  나오면 루트 안에 있는 식과 루트 자체 모두 양수인 거 쓰고 시작하기  
ex)  $f'(x) = \sqrt{4-2f(x)} \rightarrow f'(x) \geq 0, 4-2f(x) \geq 0$  두 가지 사실 알 수 있다.
- 정수 조건 나오면 부정 방정식 의심해보기 (번외로 홀수 짝수 구별 잘하기)
- 도형에서 원의 지름과 반지름 헷갈리지 않기
- 평행선 나오면 엇각, 동위각으로 났음부터 찾기
- 원 나오면 반드시 원의 중심 찍기, 원주각도 미리 찾아두기
- Cos법칙 쓸 때 둔각이면 '-' 꼭 붙이기
- 두 각의 합이 평각이면, Sin 값 동일하다는 사실 놓치지 말기
- $S_n - S_{n-1} = a_n$  이용할 때 반드시  $n \geq 2$  쓰기. 아니면,  $S_{n+1} - S_n = a_{n+1}$  이라고 사용하기
-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임을 잊지 말기
- 수열 문제는 답이 나오면 대입해서 검토 꼭 해보기 (2분으로 15번 검토면 싸게 먹히는 거다)

UR dokzon in Orbi

## 2) 수학 2

- 절댓값 나오면 반드시 범위에 따라 식 나누기
- 다항함수 넓이 공식 기억하기  
( <https://orbi.kr/00056695709> \_ 수2 다항함수의 성질 \_ 테마 특강 (4) )
- 삼차함수 변곡점의  $x$ 좌표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구하기 ( $\because 3 \times (\text{변곡점}) = (\text{세 근의 합})$ )
- $f(x) = -f(-x)$  라는 조건이 제시되면,  $f(0) = 0$  미리 써놓기
- $\frac{f(x)}{x}$  와 같이 분수식으로 나와있으면  $(x, f(x))$ 와  $(0, 0)$ 의 기울기일 수 있음을 생각하기
- $\frac{1}{f(x)}$  가 연속이려면,  $f(x) \neq 0$  인 거 미리 써두기
- 함수  $f(x)$ 의 최고차항의 계수가 안 주어졌으면, 양수, 음수일 때 모두 생각하기 (feat.220622)
- $\int$  안의 식은 항상 연속이다(교과 과정 내에서)
- 적분 시 적분 상수 항상 생각하자.

## 3) 미적분 선택과목

- 수열의 극한 실마 틀리진 않겠지...?
- 치환할 때 범위 체크하기
- 역함수는 원래 함수의 기울기가 0인 점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는 것 미리 생각하기
- 적분 시 인테그랄의 범위 잘 체크하기 (특히 치환적분)

*UR dokzon in Orbi*

### Chapter 3. 마음가짐

9월 모의고사 전력을 다해 보아야 함은 사실이다. 긴장 안 할 생각보다는, 긴장을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긴장하는 와중에도 잘 볼 방법을 생각하자.

문항들을 적절히 세트로 묶어 각각 시간을 정해두는 편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UR독존(필자)은

Set1. 1-14 \_ 최대 25분 (모두 누적 시간으로 기재하겠다)

Set2. 16-21 \_ 최대 40분

Set3. 23-29 \_ 최대 55분

Set4. 15 / 22 / 30 \_ 각 문제당 10~15분

으로 미리 정해두었다. 각 세트 별로 모두 최대 시간이 나오지는 않는다. 시간을 아낀 Set로 다른 Set의 시간을 때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시험을 망치더라도 전체를 망치지 않고 Set만 망치게 된다.

Set 1에서는 한 문제당 펜이 3분 동안 멈추면 바로 16번 Set2로 넘어갔다. 쉬운 문제부터 차근차근 해서 다시 템포를 찾겠다는 취지였다. Set2에서도 꼬이면 과감하게 Set3 23번으로 넘어갔었다.

항상 템포를 잃지 않고 똑같은 속도로 푸는 것이 중요하다. 긴장감에 계산을 무리하게 빨리 하기 보다는 펜이 내는 소리가 툭..툭..툭..툭..처럼 일정하게 유지되게 푸는 것이 베스트다.

특히 첫 페이지 1등으로 넘겨야겠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UR독존도 2209 때 그 짓하다가 23번 틀려서 98점을 맞았다고 한다...;

혹여나 펜이 멈추었거나 자신의 집중력이 흐트러진 것 같으면, 흐트러졌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얼른 맛 나 실수했네... 라는 생각을 한 후, 잠시 펜을 내려두고 10초만 눈을 감자.

마음을 고요하게 재정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우린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 혹여나 문제가 안 풀린다면 그건 우리가 문제를 잘못 읽었기 때문이었을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 바로 '다' 지워버리고 처음부터 푸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한다. 애매하게 중간부터 다시 하면, 실수할 확률이 엄청 올라가니 꼭 엄두에 두자.

제발 문제를 천천히 읽자. 발문은 1분을 읽어도 괜찮다. 속도는 계산에서가 아니라, 사고 과정 즉, 작전을 짜는 시간에서 다른 사람과 차이를 벌릴 수 있다. 그러니 문제에서 해낼 수 있는 생각을 미리 다 한다는 마음으로 꼭 천천히 읽기를 바란다.

*UR dokzon in Orbi*  
잘 하고 오길!!!